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12월 29일(주일) 제1276호

2020년 온누리교회 표어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사진은 지난해 송구영신예배.

송구영신예배 및 신년예배 각 캠퍼스 본당 (12월 31일) (1월 1일)

2019년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를 표어로 내걸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회개,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 힘차게 부르짖고 달려온 온누리교회가 송구영신예배 및 신년예배를 각 캠퍼스 본당에서 드린다.

12월 31일(화) 송구영신예배는 서빙고, 양재, 부천 오후 7시, 9시, 11시, 수원, 대전, 인천 오후 9시, 11시, 남양주,

평택, 강동, 양지 오후 11시에 드린다. 말씀은 이재훈 담임목사가 선포한다. 2020년 1월 1일 신년예배는 서빙고와 양재 오전 9시 30분, 11시 30분, 수원, 대전 오전 9시 30분, 인천 오전 10시 30분에 각 캠퍼스 본당에서 드린다. 부천, 남양주, 평택, 강동, 양지는 신년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는다(표참조). 2020년 온누리교회 표어는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이다. 신명기 6장 4-5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이웃과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20년 온누리교회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묵상하는 한 해를 보낼 전망이다.

2020년에는 1월 5일과 12월 선교헌금 작정을 시작으로 1월 20일~23일 목회사관학교, 3월 7일 순장영성수련회,

4월 6일~10일 고난주간 십야예배, 6월 3일~4일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6월 24일~26일 마리아행진, 7월 27일~8월 1일 하용조 목사 9주기 추모기간, 8월 12일~13일 The One 전국대학청년수련회, 10월 4일 온누리교회 창립 35주년 기념주일, 10월 21~23일 부흥축제, 11월 10일~11일 러브소나타 미야자키, 11월 28일 임직식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송구영신예배·신년예배 일정

캠퍼스	송구영신예배	신년예배
서빙고	오후 7시 오후 9시 오후 11시	오전 9시 30분 오전 11시 30분
양재	오후 7시 오후 9시 오후 11시	오전 9시 30분 오전 11시 30분
부천	오후 7시 오후 9시 오후 11시	-
수원	오후 9시 오후 11시	오전 9시 30분
대전	오후 9시 오후 11시	오전 9시 30분
남양주	오후 11시	-
인천	오후 9시, 11시	오전 10시 30분
평택	오후 11시	-
강동	오후 11시	-
양지	오후 11시	-

1월 5일, 12일 '2020년 선교헌금 작정'

선교헌금, 중보기도, 재능기부로 동참

온누리의 새해는 선교와 함께 시작한다. 2020년 첫째 주일(5일)과 둘째 주일(12일) 실시되는 선교헌금 작정에 동참하는 것으로 누구나 선교할 수 있다. 선교헌금, 중보기도, 재능기부로 동참할 수 있다.

2020년 선교헌금 작정에는 예배에서 나눠주는 작정서를 작성한 다음 제출하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동이체(CMS)나 현금봉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규, 증액, 현금봉투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체크하면 된다. 자동이체로 후원하고 있는 성도들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현금봉투로 후원하고 있는 성도들은 작정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에도 표시해야 한다. 중보기도나 재능기부로 후원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해당란에 체크하면 된다.

한편 2000선교본부에서는 선교사들의 기도제목을 전달하기 위해 <ON편지>, <선교사 간증집> 등을 발간하고 있다. <선교사 간증집>은 1월 2일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문의: 02-3215-2616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2019 엔젤트리 마감

사연 4,558건 접수, 이웃 4,526명에게 선물

2019 엔젤트리 행사가 마감됐다. 사연 4,558건이 접수되었고, 이웃 4,526명이 온누리교회 성도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엔젤트리가 보낸 선물을 받은 이웃들로부터 감사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김기쁨 씨(가명)는 "교회에 관심이 생겼고, 온누

리교회에 방문하고 싶다"고 했고, 최은혜 어르신(가명)은 "교도소에 있는 아들이 엔젤트리에 사연을 신청해서 새 옷을 선물 받았다"면서 "그 옷을 입고 아들 면회를 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C. S. 루이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특강

두란노 창립 40주년 및 CGNTV 개국 15주년 특강 'C. S. 루이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1월 13일(월)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선교관 5층)에서 열린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C. S. 루이스가 증거하는

그리스도',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 기쁨의교회 담임)가 '루이스가 만난 그리스도'를 주제로 강의한다. 회비는 3만 원. 1월 6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1만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456(내선 5번)

순예배 영상 시청안내

요한복음 1:1~13(1월 1일 본문)
본문 주제: 생명(예수님은 참 생명과 참 빛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제목: 영광의 영 - 존파이퍼 목사
내용: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그리스도를 높이려는 소망을 품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질문: 악하고 혼란한 이 시대 성도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지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일들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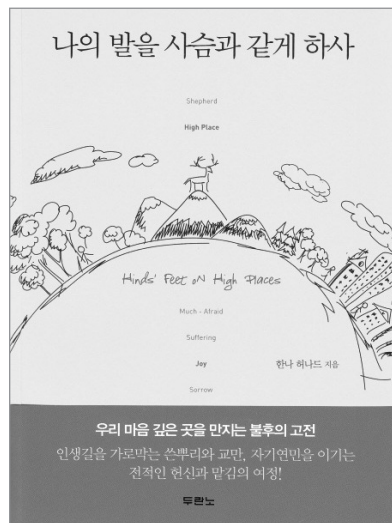


CGNTV SOON
유튜브에서 'CGNTV SOON'을 검색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사

겉쟁이에서 은혜와 영광으로



나의 발을 사슴과 함께 하사
한나 허나드 지 | 두란노 | 11,000원

몇 개월 전 뜻밖의 사고로 잠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병실에 누워 있는 것이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몸으로 느끼는 통증보다 마음이 분주해서 느끼는 통증이 훨씬 참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 분주한 마음에 진통제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의 저자 한나 허나드(Hannah Hurnard)는 1905년 영국의 신앙심 깊은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녀는 선천적으로 말더듬이 심했고, 그 때문인지 비정상적인 공포증이라는 심리적 장애도 가지고 있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자살을 목상할 정도로 삶에 회의를 느끼던 무렵 극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 회심하게 된다. 회심 이후 선교지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한 그녀는 훈련 과정 동안 평생 고통스러웠던 말더듬 증상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녀는 1932년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 50년 동안 이스라엘 선교사로 헌신했다.

〈나의 발을 사슴과 함께 하사〉는 여성이 쓴 〈천로역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주인공 ‘겉쟁이’가 두려움이라는 일가(一家)를 벗어나 목자와 함께 높은 곳으로 가면서 겪는 파란만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인공은 나면서부터 치명적인 두 가지 흠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다리가 휘어진 절름발이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입이 흉하게 비뚤어져 있어 표정도, 말하는 것도 이상하다는 것이었다. 혼자 힘으로 잘 걸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기 일쑤였던 겉쟁이는 높은 곳을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목자가 그녀를 이끌어 높은 곳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된다.

그녀의 여정에 함께 한 두 친구가 있었는데 ‘고통’과 ‘슬픔’이었다. 말이 친구지 몸서리치며 싫어할 정도로 그들과 같이 가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의 손을 놓을 때마다 힘이 넘쳐지는 자신의 모습 앞에 고통과 슬픔을 받아들이고 친해지기 시작한다. 험난한 여정은 계속된다. 사막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고, 외로움의 해변을 거닐게 된다. 오래된 방파제와 거대한 상처의 절벽을 지나 위험과 환난의 숲과 상실의 골짜기를 건너 드디어 치료의 강물에서 자신의 휘어진 발이 곧은 발이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또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더없이 평온한 어린이와 같게 된 것을 보게 된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기쁨과 말할 수 없이 감미로운 평안을 경험한 그녀는 풀밭과 바위와 산등성이를 뛰어다니며 즐거이 노래를 부른다. 그 순간 곁에 있었던 목자는 그녀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다.

“이제부터 너는 ‘은혜와 영광’이야.”

오랜 친구들도 새로운 이름이 생겼다. 고통과 슬픔에서 기쁨과 평화로.

이 책의 말미에 결국 왕이 된 목자는 그녀에게 높은 곳의 비밀을 알려주며 이렇게 말한다.

“네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인내하려 하는 한 너는 절대 다시는 절름발이가 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인도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슴의 발을 갖게 될 거야.”

이 책은 바로 나를 위한 책이다. 사랑하는 목자를 따라 높은 곳을 향해 출발한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다.

“주께서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시 18:33).

절름발이와 같은 나의 발을 사슴과 함께 하겠다. 이 땅에서 그 어떤 절망과 아픔과 상처와 자기연민과 불의와 욕망과 시험의 산과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거뜬히 뛰어넘는 꿈을 꾸게 된다. 지금 두려움의 집에 붙잡혀 있더라도, 외로움의 해변을 거닐고 있더라도, 상처의 절벽을 오르고 있더라도, 상실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더라도, 위험과 환난의 숲에서 울고 있더라도,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겉쟁이에서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된다.



김용민 목사
(여호수아공동체)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평안은 받고 싶지만, 영생은 받고 싶지 않아요.”

답: “영생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만이 아니에요. 죽지 않고 오래도록 같듯하고, 고뇌하며, 사는 것도 아니지요. 영생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친밀한 교제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아주 때 묻지 않아 보이는 초등학교 남학생을 전도한 적이 있다. 그 학생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기 원하셔서. 바로 평안과 영생이야. 이 선물을 받고 싶지 않니?”

눈높이에 맞춰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했다. 그 아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뜻밖의 대답을 했다.

“저는 솔직히 평안은 받고 싶지만 영생은 받고 싶지 않아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 예수님의 평안을 선물로 받고 싶어요. 하지만 영생은 천국에 가는 거니까 지금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아이의 대답을 듣고 영생과 천국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여 주었다.

“영생이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것을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단다.”

그제야 그 아이가 이해가 된다면서 영생을 선물로 받겠다고 했다.

한번은 용산역으로 노방전도를 나갔다.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은 노방전도에 거부감이 많아 다가가기가 어렵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열차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에게 다가갔다.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일축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라고 필립 안시라는 분이 말했는데, 청년은 한번도 하나님께 실망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질문에 그 청년이 열른 스마트폰을 내려 놓더니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던 청년은 “저는 평안은 받고 싶지만 영생은 받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살기 힘든데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너무 끔찍해요.”라고 대답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선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라 오해하고 있었다.

“영생이란 단순히 천국행 티켓만이 아니에요. 또 죽지 않고 지겹도록 같듯하고 고뇌하며 사는 것도 아니에요.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친밀한 교제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을 말하지요. 정말 친한 연인이나 친구에게 차 한 잔 마시며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 등을 고백하며 나누지 않나요? 영생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삶에서 체험하는 것이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시면 희망이 싹트고 생기가 돌고 기쁨이 솟아나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삶을 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주님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내 말을 다 듣고 난 후 그 청년은 “선물을 받고 싶어요.”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하나님께 바라고 싶은 것이 있으면 기도해도

리겠다고 했더니 사실 자신은 목사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고 했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고 침묵만 하셔서 안 계시다 생각하며 실망했단다. 열차시간이 다 되어 대화를 나눌 수 없었기에 이제부터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대화하며 교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었다.

전도할 때 미래의 천국만이 아니라 현재의 천국도 전해야 한다. 죽음 이후의 천국만 강조하면 신앙과 현실의 괴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영생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천국은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임을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내 아버지이심을 알고, 부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다.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전도여왕의 전도레시피〉 저자)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누가복음 2:8~20

“최고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탄이야기가 기록된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경배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기이한 징조들을 통해 알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멀리 동방의 사람들까지도, 베들레헴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들에게까지도, 별을 보고 세상의 징조를 알기 원했던 그들에게까지 특이한 징조가 나타났다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세상에 오심을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이한 징조를 보여주셨다고 믿는 것이 올바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예언과 유대 민족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유대 민족의 문화, 관습, 율법의 모든 것이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무지했고, 무관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관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더 많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의 징조를 보고 유대 땅으로 왔을 때 헤롯이 놀랐습니다. 헤롯이 놀랐다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세 사람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 세 가지 예물 가지고’라는 찬송가 가사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세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먼 거리를 세 사람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이동할 때는 큰 무리가 함께 했습니다. 예물도 상자 세 개만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황금, 유향, 몰약으로 대표되는 최고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을 체크하면 성탄절 칸타타나 드라마를 할 때는 동방박사들과 베들레헴 목자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하지만 시점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나이가 적어도 1~2살 사이였습니다. 헤롯이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온다고 하는데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대답했

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예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그 대학살의 명령에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던 시점은 예수님의 나이가 최대 2살입니다. 적어도 둘에서 2살 사이는 났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

하나님께서 저 멀리 있는 이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전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늘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 같이 밤낮으로 금식하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믿고, 그 예언대로 바라며 금식하고 기도했던 안나 같은 여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징조와 계시로 예수님 오심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시를 듣고 메시아를 찾아가서 처음으로 경배한 이들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1년이 지난 후 예수님의 집으로 경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복음서 관점으로 보면 마태복음에 동방박사들이 등장하고, 누가복음에 목자들이 등장하는 것이 너무나 정확한 분류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분에게 당시 신분사회에서 목자들이 경배를 했다면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목자들이 경배했던 그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복음서의 모든 기록을 정리하는 데도 성령님께서 지혜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그들을 양과 같이 분류했을 것입니다. 24시간 양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돌보느라 그들의 몸에서는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피부는 거칠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성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차단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그들의 귀는 열렸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에 가까이 갔습니다. 어떤 사회든지 어떤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지고, 누가 첫 번째 증인인가에 따라서 메시지의 신뢰도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소식도 중요하지만, 그 소식을 누가 전하는지도 중요하고, 그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듣는지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입장을 이웃 국가에 설명할 때, 아무나 가서 전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서 그 국가에 소식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전하지 않습니다. 소식을 듣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셨다는 소식을 첫 번째로 들은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보면 목자들에게만 그 소식이 전해진 것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서기관들에게도,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계시를 통해 전해졌으리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들을 마음이 없었고,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는 들어도 무시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자신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입으로는 말했지만 마음으로는 환영하지 않았습다. 그들의 거짓, 탐욕, 권력이 예수님이 오시면 드러나고, 폭로되고, 무너진다는 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언을 읽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러 징조를 유심히 살피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임박한 때에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징조와 계시를 보여주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지진, 도처에 전쟁, 사람들의 이기심,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은 별일 없을 거야. 과학기술만 발전하면 돼.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라고 착각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은 성경의 계시를 민감하게 살피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성령 안에서 깨달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의 열린 귀, 눈, 마음

그렇다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왜 최초의 증인이자 경배자가 되었을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알았고, 알아야 하며,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양 떼를 지키며 들판에서 사람으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았지만, 그들에게는 열린 눈이 있었고, 귀가 있었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고통스러웠기에 오히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는 열린 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린 눈도 있었고, 열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계시가 임했을 때 그들은 서둘러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는 자들이 붙잡을 수 있습니다. 깨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도 분별하지 못했고, 다시 오심도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의 증인이며,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했던 목자들처럼 열린 귀와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는 기도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은 ‘구유’ 마지막은 ‘십자가’

성탄의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버려진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버리고, 소외시키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을 더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시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확인하고 경배하러 갔을 때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13면에 계속)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

크리스천들이 꼭 알아야 할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 예수님의 성육신 ... 하늘 보좌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지난 25일(수)은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이었다. 수많은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성탄의 기쁨을 만끽했다. 교회와 카페, 대형 쇼핑몰 곳곳에서는 캐럴이 울려 퍼졌고, 거대하고 화려한 트리가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이들은 산타클로스에게 선물 받기를 고대하며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른다. 그런데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행사, 노래, 문화 등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즐기고 있을까?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화려하고, 화려한 분위기와 근사한 선물에만 취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크리스천들이 꼭 알아야 할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메리 크리스마스!”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장 많이 하는 인사말이다.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Christ’와 미사를 뜻하는 ‘mass’가 합쳐진 단어다. ‘예수님께 미사(예배)를 드린다’는 뜻이다. ‘Merry’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기쁜’ 혹은 ‘즐거움’을 의미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자’는 의미이다. 성탄절에 주고받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사말이다. 간혹 크리스마스를 ‘X-mas’라고도 표현하기도 한다. 여기서 X는 그리스어의 그리스도(Χριστός)의 첫 글자를 의미한다.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인사말이 나라마다 다르다. 스페인 “펠리츠 나비닷(Feliz Navidad)”, 독일 “프로에 바이나흐텐(Frohe Weihnachten)”, 프랑스 “조이유 노엘(Joyeux Noel)”, 중국은 “성탄 과일(shèng dàn guài lè)”, 일본 “메리 크리스마스(メリ-クリスマス)다.”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트리? 메시아 아기 예수의 탄생!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밤에 다녀가신대♪”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캐럴이다.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 할아버지가 예수님보다 중요한 인물이 되어 버리는 것 같다. K성도도 얼마 전 딸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실감했다고 한다.

“딸(6세)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기에, 제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지 산타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딸이 ‘아냐.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알고 있어. 아빠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못 받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산타 할아버지는 과연 누구일까? 실존 인물일



까? 산타클로스는 3세기(약 270년)경 소아시아 지방(지금의 터키)에서 태어나 많은 선행을 베풀고 대주교가 되었던 성 니콜라스(St. Nicholas)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라틴어로는 ‘상투스 니콜라우스’이다. 네덜란드인들이 그를 ‘산 니콜라우스’라고 불렀다. 그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산테 클라스’라고 불렀고, 오늘날의 ‘산타클로스’로 바뀌게 되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타의 모습은 뚱뚱하다. 붉은 옷과 붉은 모자를 쓰고, 불룩한 배와 곱슬곱슬 흰 수염이 덩수룩한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 모습은 성 니콜라스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된다. 성 니콜라스가 그려진 중세 벽화를 보면 전혀 살이 찌지 않았다. 오히려 말랐다. 마른 모습의 니콜라스가 어떻게 뚱뚱하게 변하게 된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산타의 모습은 철저한 마케팅의 산물이다.

처음 산타가 삽화로 등장한 것은 1860년대 토마스 나스트(Thomas Nast)라는 사람이 잡지 〈하프 위클리〉에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을 보면 남북전쟁 중에 연합군 캠프를 방문하는 산타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수염이 덩수룩한 푸짐한 몸매가 인상적인 할아버지다. 다만 옷은 빨간색이 아니라 검은색이었다.

산타의 빨간색 복장은 코카콜라 마케팅에서 비롯됐다. 1931년 코카콜라가 겨울철 콜라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자 이를 막기 위해 홍보 전략으로 코카콜라의 상징적인 색인 빨간색을 산타클로스에게 입히면서 백화점 홍보에 나선 것이 크게 알려졌다. 하든 샌드블롬(Haddon Sundblom)이라는 화가가 자신의 친구를 모델로 그린 이 산타 이미지는 코카콜라의 마케팅과 함께 전 세계 산타의 표준이 되었다. 이 산타클로스 마케팅은 코카콜라의 상업적 초대박 성공의 하나로 기록되었다.

산타클로스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크리스마스트리다. 크리스마스트리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가장 오래된 설은 고대 이집트에서 동지제(冬至祭)를 지낼 때 사용하던 나뭇가지 장식이 트리라는 것이다. 로마 기원설도 있다. 로마 축제 행렬에서 촛불을 단 월계수 가지 장식 등 성목(聖木) 숭배 풍습이 크리스마스트리의 기원이라고 한다.

종교개혁가 루터로부터 크리스마스트리가 시작됐다는 설도 있다.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평소 어둡던 숲이 등불을 켜놓은 듯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 이유는 영롱한 달빛이 소복하게 눈 쌓인 전나무 위에 비쳐서 마치 등불을 켜놓은 것처럼 주변이 환하게 빛났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본 루터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인간은 저 전나무와도 같다. 한 개인은 어

둑속의 초라한 나무와도 같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주변에 아름다운 빛을 비추일 수 있는 존재이다.”

루터는 이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전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져왔고, 이 전나무에 눈 모양의 솜과 빛을 발하는 리본과 촛불을 장식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트리의 시작이라 한다. 물론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할 길은 없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습관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인사를 하고, 선물을 사서 나눈다. 아이들은 오매불망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손꼽아 기다린다.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거리 곳곳에 설치된 크리스마스트리는 눈이 부실 정도다. 케이크 가게는 또 어떠한가.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 혹은 연인과 크리스마스를 만끽하기 위하여 케이크를 사느라 북새통이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아주 뜻 깊은 날이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대하고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천군천사들이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며 찬양했다(눅 2:13~14). 또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빛난 예수의 별을 보고 찾아와 값비싼 예물(황금, 유향, 몰약)을 바치며 아기 예수에게 경배 드렸다(마 2:1~10). 비극적인 사건도 발생했다.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에 심기가 불편해진 헤롯 왕이 베들레헬과 부근에 있던 2살 이하 사내아이들을 모조리 학살했다.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는 대학살을 피해 이집트에서 피난생활을 해야만 했다(마 2:13~18). 이러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뒷전인 채 상업화된 분위기에 편승해서 밝고 화려한 면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크리스천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도, 선물도, 케이크도, 반짝반짝 트리도 아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지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이 꼭 알아야 할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이다.

크리스마스는 예수가 태어난 날이다!

에밀 놀데(1867~1956년)의 ‘거룩한 밤’



김진국 집사
(융합심리학연구소장,
한강공동체)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탄일종이 땡땡 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 눈이 내린다 ~♪”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말이 되면 길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럴이 넘쳐났다. TV에는 성탄 소재의 드라마나 특집방송이 연일 방영되었다. 유명 가수나 개그맨들이 정통 버전 혹은 코믹 버전의 크리스마스 캐럴송을 담은 앨범을 앞다퉈 내기도 했다. 성탄절 당일이나 전야에 눈이라도 올라치면 그야말로 ‘화이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모습이 사라졌다. 저작권법의 영향이 있다. 캐럴 한 곡을 때마다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 상점이나 카페 소유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여기서 말로 표현하거나 용어를 사용할 때 인종, 민족, 종교, 성차별 등의 편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는 움직임인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운동’이 만연하면서 상황이 더욱 안 좋아졌다.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운동이 도를 넘어서면서 자신들이 듣기 싫은 소리는 무조건 거부하는 또 다른 차별과 편견을 가져오고 있다. 이제는 소수자가 차별받대라는 이름으로 다수자를 옹호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시작부터 분위기를 너무 무겁게 한 것 같다. 모두들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셨는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즐거운 성탄절이었기를 소망한다. 아울러 이 땅에 사랑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받들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실현되기를 기도한다.

서구에서는 ‘성탄 시기(Christmas tide)’라고 해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뿐만 아니라 성탄절이인 24일부터 이듬해 1월 6일까지 크리스마스 인사와 새해 인사를 함께 한다. 크리스마스카드에 보면 나오는 계절인사(season's greeting)라는 말이 바로 그 의미다. ‘메리 크리스마스’와 ‘해피 뉴이어’를 연창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명화로 보는 아기 예수 탄생

오늘 소개할 명화는 표현주의 스타일로

그려진 에밀 놀데(1867~1956년)의 ‘거룩한 밤’이다. 표현주의는 아주 강렬한 원색과 거친 붓 터치, 형태의 대담한 변형과 단순화를 특징으로 하는 미술의 한 유파이다.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표현주의 미술 작품은 에드 바르트 뭉크(1868~1944년)가 그린 ‘절규’이다. 작품 절규를 생각하면 표현주의 미술의 특징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린 에밀 놀데의 ‘거룩한 밤’을 한번 보자. 기존의 화가들이 그린 성화(聖畵)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히브리(유대) 여인의 그것이다. 아주 검은 머리, 커다란 눈동자, 관능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도톰하게 붉은 입술은 그녀의 글래머러스한 가슴과 함께 새 생명을 잉태했다가 갓 출산한 산모 마리아의 건강함을 잘 보여준다.

아직 핏덩이 상태인, 막 세상에 나온 어린 예수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보호본능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의 탄생은 장차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기 예수를 반쯤 들어 세상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음을 선포하는 이 장면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생을 경배하기 위한 대장정의 집을 꾸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마구간에서는 겸손함을 상징하는 나귀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다.

순수한 10대 소녀였던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열어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 육화(肉化)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2천 년 전, 하늘 아버지가 인간의 몸을 빌려 지상에 오실 수 있도록 하는데 헌신한 것이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인간 세상에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일조했다. 그렇다면 2천년이 지난 우리는 뭘 해야 할까? 마리아가 자신의 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육신의 토대가 되었다면, 우리는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

아기 예수 탄생의 그 의미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혼돈스럽다. 지난주 성탄절을 맞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성탄의 의미를 묵상했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다. 단순히 즐거운 공휴일(Happy Holidays)로 불러서는 안 된다. 물론 크리스마스는 즐거워야 한다(Merry Christmas). 그렇다고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크리스마스를 할로윈데이 파티처럼 흥청망청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이나 정치적 올바름 운동의 영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체 교단 차원의 치밀한 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치고 나가는 저돌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고도의 전략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거대한 문화전쟁이자 영적 전쟁이 될 것이다. 이 문화전쟁과 영적전쟁에서 승리해서 거리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가 다시 넘쳐나고,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good news)을 마음껏 전하며, 온 맘 다해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성탄절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다.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근본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인간 세상’에 태어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태어나셔야 한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온전히 새롭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다시 한번 경배 드리고 찬양한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성도들도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었기를,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것이다. 성서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성경 속 예수 탄생 스토리를 매우 경건하게 묘사하려 했던 전통을 이 그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가브리엘 대천사가 나타나 처녀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리라고 전할 때, 처음에는 놀라고 당혹했으나 잠시 후 정신을 가다듬고 ‘아멘’으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받들던 마리아의 순종적인 모습을 그렸던 수많은 수태고지(受胎告知) 그림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마리아는 사랑을 상징하는 빨간 치마에, 순결을 상징하는 하얀 티셔츠를 입고 있다. 그녀의 기다랗게 우뚝 솟은 코는 전형적인

선 ‘라이언 킹’에서 무파사왕의 아들 심바의 탄생을 세상에 선포하는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세상은 아직 어둡다. 그러나 암흑의 세상을 밝게 비출 세상의 빛 메시아가 막 태어났으므로 어두운 세상은 곧 환하게 밝아질 것이다. 에밀 놀데는 아기 예수의 뒤로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을 배치함으로써 구세주 탄생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저 언덕 너머로는 천사로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목동들이 오고 있다. 아마도 저 동쪽 지방 멀리 어딘가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저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

2020 선교헌금 작정을 앞두고 - 은퇴선교사들의 고백

“내가 끝까지 선교할 수 있었던 원동력”

성도들의 선교헌금, 중보기도, 재능기부

은퇴선교사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냥 하는 말도 아니고, 체면치레 하려는 말이 아니다. 진짜 선교가 그렇다. 선교사 혼자서는 어려움을 만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벽에 가로막히면 그 벽을 넘어서는 게 쉽지 않다. 하나님께 서는 선교사들이 힘들 때마다 돕는 손길을 보내주셨다. 성도들이다. 은퇴선교사들은 “성도들의 선교헌금과 중보기도, 재능기부가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892명이 선교지를 끝까지 지키고, 한평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고백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교회 선교사여서 행복했다는 김광선 선교사(좌)와 한익권 선교사(우).

은퇴선교사 두 명을 만났다. 그들은 “선교사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다”고 고백했다. 김광선 선교사는 동아시아 B국에서 82세에 은퇴했고, 한익권 선교사는 동아시아 A국에서 73세에 은퇴했다. 그들이 끝까지 선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선교헌금, 중보기도, 재능기부였다.

“60대에는 인생의 100%를 하나님께”

김광선 선교사는 대학생 시절 섬기던 중등 야학교 학생들에게 “60세부터는 내 인생 100%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선언했다.

“참된 크리스천은 수익뿐만 아니라 인생까지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40대에는 인생의 40%, 60대에는 인생의 100%를 십일조로 드리자고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걸 까맣게 잊고 살다가 60세에 기억해냈어요. 바로 사회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은 동아시아 B국에 선교베이스가 막 세워지던 때였다. “동아시아 B국 선교 베이스를 담당하던 선교사가 안식년을 갖지 못하고 있으니 1년만 고생해 달라”는 하용조 목사의 권면으로 김광선 선교사가 동아시아 B국 선교베이스로 파송 받은 게 1998년이였다. 김광선 선교사는 동아시아 B국 선교 베이스를 섬기면서 현지인들을 양육하고, 현지 교

회에 양육, 전도, 봉사 등을 활성화 시켰다. 그 중에서 성도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사역이 구제다.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 구제사역을 많이 했어요. 동아시아 B국 문화로는 이유나 대가 없는 섬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우리는 크리스천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섬긴다고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고요.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점차 사역대상이 늘어나면서 20개촌(1개촌 주민 200명)을 섬겼어요. 해외비전교회 성도님들이 구제사역에 많이 동참해주셨어요.”

김광선 선교사는 지난 2008년 후임자에게 동아시아 B국 선교베이스를 넘기고 국내로 들어와 신학을 공부했다. 또 다른 선교를 위해서였다.

“초창기에는 신학을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선교사역이 점차 성장하면서 현지 교회에 나눠줘야 할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안식년에 국내로 들어와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동아시아 B국 선교베이스에서 훈련받은 현지인이 남쪽에 내려가서 함께 사역하자고 제안하더라고요. 그곳에서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역하고 은퇴했습니다.”

김광선 선교사에게는 동아시아 B국에서 보낸 20여 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였다.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성도들의 선교헌금, 중보기도, 재능기부였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처럼 선교에 전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선교지에 있으면 그 헌신에 감탄이 나올 정도예요. 안식년이나 갑작스런 질병으로 본국에 오는 선교사님들도 성도님들이 부족함 없이 섬겨주셔서 행복할 수밖에요.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초토화된 전장에서 승리의 깃발을

한익권 선교사도 50세 무렵 사회생활을 정리하고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주의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자녀의 소개로 인터콥에서 시니어선교 훈련을 받았다. 이 훈련을 계기로 인터콥에서 시니어동원사역을 하게 됐는데 주로 동아시아 A국으로 선교사들을 동원했다.

“인터콥 간사로 5년 동안 섬기면서 입만 열면 ‘동아시아 A국으로 가라’고 했는데 저는 정작 동아시아 A국에 가기 싫었어요. 가보지도 않았고, 이 나이에 혼자 가서 뭐하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하게 정리를 하려고 팔봉산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팔봉산 기도원에서 한익권 선교사는 흑한의

날씨를 좁디좁은 방에서 모포를 뒤집어쓰고 견디면서 주님의 뜻을 물었다. 갑자기 눈앞에 빨갛고 커다란 십자가가 보이더니 “동아시아 A국의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달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렇게 2001년 동아시아 A국으로 향했다. 첫 해는 정말 힘들었다.

“가로등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는 무법지대에 출기는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밤중에 회의가 끝나면 숙소까지 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술에 취한 부랑자들이 길가 여기저기에 있었거든요. ‘가로등 좀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거짓말처럼 제가 살던 지역부터 가로등이 생겼어요. 정말 놀랐어요. 현지 선교사들이 동아시아 A국 가로등은 한익권 선교사가 세웠다고 할 정도예요. 그때부터 두려움과 어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한익권 선교사는 B학교에서 거리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남자는 운전수, 여자는 미용사라고 답할 만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아이들이 많았다.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일대일 장학사역을 시작했어요. 강서, 김포공동체에서 그 아이들을 오랜 기간 돌봐주셨어요. 아웃리치 와서 그 아이들과 교제하고, 대학등록금까지 내주셨어요. 그 덕분에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익권 선교사는 현지인 7명과 중보기도모임을 초석으로 현지인들이 중심이 된 ‘영원한 무지개교회’를 개척했다. 지금은 4개의 지교회를 돌 정도로 성장했고, 현지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동아시아 A국은 국가에서 불교와 토속신앙을 장려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기 힘든 지역인 것을 고려하면 대단한 열매다. 한익권 선교사와 현지인 성도들이 지역마다 지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아웃리치였다.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방문해 주셨어요. 몸 누일 곳도 변변치 않은데 아웃리치를 오셔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한바탕 전도하고, 집회하고 나면 그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한익권 선교사는 올해 73세 나이로 은퇴했다. 한 선교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해주시는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동아시아 A국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는 매 순간이 영적전쟁이예요.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는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로 초토화된 전장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게 선교사의 역할입니다. 2020년에도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무대보다 감동적인 그 뒷이야기

사랑챔버 ‘희망콘서트’가 막 오르기까지

온누리 사랑챔버 오케스트라(이하 사랑챔버)가 또 한번 너무나 큰 선물을 줬다. 단원들은 물론이고 단원들의 부모, 협연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관객들에게 한평생 기억될 선물이었다. 그 선물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감동과 희망이었다. 사랑챔버의 공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던 그 큰 감동과 희망보다 더 큰 감동이 숨어 있다. 온누리 사랑챔버 ‘희망콘서트’가 막 오르기까지의 눈물겨운 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무대보다 감동적인 그 뒷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을 듣는다면 이런 기분일까? 천국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이런 모습일까? 지난 18일(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막 오른 사랑챔버 희망콘서트를 보는 내내 들었던 생각이다.

눈물어린 헌신과 기도, 노력이 만들어내는 작품

사랑챔버가 희망콘서트 무대에 오르기까지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연습과 수많은 이들의 눈물 나는 헌신, 밤낮 가리지 않는 기도가 숨어 있다. 사랑챔버를 이끌고 있는 손인경 단장의 헌신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사랑챔버의 공연이 정해지면 손인경 단장은 곡을 고르고 단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편곡을 한다. 악보를 잘 볼 줄 모르는 단원들을 위해 음표 하나, 운지하기 좋은 위치까지 정말 세심하게 살핀다. 매주 화요일 연습에서는 단원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면서 호흡과 동작을 꼼꼼하게 살핀다. 손인경 단장의 지휘는 여느 지휘자들의 지휘와 사뭇 다르다. 암호에 가까운 몸짓과 손짓, 세심한 눈빛과 표정으로 단원 한 사람 한 사람과 사인을 주고받는다. 손인경 단장은 개인 시간을 오로지 사랑챔버에 온전히 내어주고 있다.

손인경 단장만큼이나 아무런 보상 없이 사랑챔버에 애정을 쏟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

다. 단원들의 개인레슨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음악인 봉사자들도. 자원봉사자들은 곡이 나오면 사랑챔버 단원들과 개인레슨을 시작한다. 일주일에 한 번, 못해도 2주에 한 번은 단원들과 만나서 레슨을 한다. 사랑챔버를 20년 동안 섬긴 한 봉사자는 이렇게 고백했다.

“긴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사랑챔버를 섬기지 않았다면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챔버 단원들과 어머니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위로받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챔버 단원들을 가장 사랑하는 이들은 어머니들이다.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 연습을 하다보면 단원들의 컨디션이 나빠질 때가 많다. 단원들이 계속되는 연습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고, 짜증을 부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감정을 언어로 적절하게 표현하기 힘든 단원들은 악기를 집어 던지기도 하고, 연습 도중 뛰쳐나가기도 한다. 그럼에도 단원들의 어머니들은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늘 자녀들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견디고 이겨낸다. 어머니들의 기도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김명희 권사(사랑챔버 어머니 대표)가 사랑챔버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하나님께서서는 분명 태의 기업을 상급이고 선물이라 하셨는데,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 자녀를 본인이 짊어질 십자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랑챔버를



Acts29비전빌리지 캠프에 참여한 사랑챔버.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태의 기업이고 상급임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 그 자체가 감사이고, 우리 아이들의 연주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챔버 단원들의 피나는 노력도 너무나 귀하다.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눈물, 기도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다. 사랑챔버 단원들은 잘 외워지지 않는 곡들을 매일같이 연습하고 또 연습한다. 손가락이 다 트고 갈라져도, 잠을 자면서도 음을 흥얼거릴 정도로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 단원들에게는 무대에 서는 순간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이다. 이번 희망콘서

트 때도 그랬다. 사랑챔버 단원들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있었다.

온누리 사랑챔버의 공연은 손인경 단장, 자원봉사자들, 어머니들, 단원들의 눈물어린 헌신과 기도, 노력이 만들어내는 작품이다. 사랑챔버는 매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20년 동안 600회 이상 공연을 해왔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소년원, 병원 등지에서 감동과 희망을 선물했다. 예술의전당, 청와대, Nicky 부이치치 강연, 미국, 홍콩, 괌, 독일 등 이름난 곳에서 초청을 받기도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챔버의 연주를 들으면서 희망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사역칼럼



손인경 집사
(사랑챔버 단장)

“자폐도 좋습니다! 모두 신정하세요!”

1995년 5월 3부 예배에서 하용조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따라 사랑챔버가 시작되었다. 장애인에게 무료로 바이올린을 가르치겠다는 나의 제안이 의도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들어지는 순간이었다.

사랑챔버 사역을 하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잠언말씀처럼 내가 먼저 계획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 20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갑작스러운 딸의 사고, 친정 엄마의 희귀성 뇌질환, 나의 유방암 등 개

인적인 일을 비롯해 단원들의 탈퇴 등 사랑챔버 내부적인 일들이 많았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가 사랑챔버를 떠날 수 없게 하였고, 사랑챔버를 주목하시며 만져나가셨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랑챔버는 국내외 크고 작은 연주 자리에 초청받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선물했다. 이제와 돌아켜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었다.

사랑챔버 사역을 하며 만난 정말 고마운 분들이 있다. 항상 기도로 동역해주시고 아름다운 수화로 매 공연 함께하는 어머니들,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무대 뒤에서 스태프로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헌신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너무 아름답다. 또 감사하게도 사랑챔버를 위해 큰 사랑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 효성그룹에

서는 2014년부터 첼리스트 요요마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진행하며 매년 사랑챔버에 후원을 하고 있다. 매년 ‘사랑챔버의 자립을 위한 희망콘서트’를 후원해주고 계신 분도 있다. 타고회 장로님 한 분께서 단원들의 훗날을 걱정하시며 자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고 계신다.

사랑챔버 사역을 하다보면 “발달장애인들을 데리고 뭘 그리 열심히 훈련 하나”고 묻는 분들이 있다. 사랑챔버 단원들은 이름을 불러도 눈을 맞추지 못하는 1, 2급 자폐성 발달장애인들이 대부분이다. 단원들이 클래식 악기(특히 현악기)를 다루는 일은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서, 소통을 할 줄 몰라서 힘든 것이지 재능이 없거나 장애가 있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절대 대중 지도할 수 없게 된다. 단원들 안에 숨겨진 그 비밀이 내가 20년 동안 사랑챔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시작했던 봉사가 어느새 사역이 되었고, 이제는 사명이 되어버렸다. 요즘 가장 큰 기도제목은 ‘사랑챔버의 자립’이다. 내가 최근 암 판정과 수술을 받아 그런지 당장 단원들의 앞날이 걱정이 된다. 내가 없어도 사랑챔버가 활동을 이어가며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연주활동을 통해서 직업 실내악 단처럼 월급을 받고 집중적으로 연습과 훈련할 수 있는 전용연습실이 마련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서 단원들의 부모님들이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단원들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기숙공간이 마련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 비전들이 조금씩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지난 20년 동안 사랑챔버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끌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 20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이끌어 가주시기를 기도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He who dwells in the shelter of the Most High will rest in the shadow of the Almighty. Psalm 91:1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라

◆ 12월 21일 토요일

하나님의 시험: 여호와이레

창세기 22:11~18

이재훈 목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기다려서 태어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고민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의문도 없이 즉시 순종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딜레마가 나옵니다.

첫째, 사회윤리적 관점으로 볼 때 이해하기 힘든 딜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비윤리적인 명령을 내리셨는가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비밀을 풀 수 없습니다. 성경 자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에 비춰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계시를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물이 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과 신학적인 관점의 딜레마입니다.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져 죽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

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는 것과 약속하신 분을 믿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약속하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모든 딜레마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나타난 두 가지 딜레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계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명령대로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그것은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말했습니다(12절).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솟양 한 마리가 덩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창 22:13).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이삭 대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믿음의 마지막 시험은 하나님이하신 제물의 교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교체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과 우리를 교체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 당하여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심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그분의 그늘 아래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분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 12월 23일 월요일

하나님의 양식

출애굽기 16:31~35

박종길 목사

‘만나’는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음식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아주 특별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양식 만사를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만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얻어지는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입니다.

둘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었는데 모세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신 8:3).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주리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사단이 와서 네

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널려있는 돌을 빵으로 바꾸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힘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약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살찌워서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만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만나는 하루라는 유효기간이 있지만, 그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썩지 않는 만나(히 9:4)도 있습니다. 금항아리에 담아 법궤 안에 둔 만나는 안 썩었습니다. 이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가 곧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요 6:48~51).

누구든지 하늘에서 내려온 빵(예수님), 살아있는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빵,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빵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 12월 24일 화요일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기 33:17~23

박종길 목사

모세는 시내 산으로 올라가 40일 금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시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 금송아지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낸 신이라고 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광강히 화가 나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말씀드리자 하나님께서 분노를 누그러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수 있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이름으로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7~18절을 보면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입니다. 모세는 부모,

왕,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에 담겨진 눈물과 고통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손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자기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습니다. 대충하는 기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 달라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구해서는 안 될 기도입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영적인 사랑과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가까운 바위 곧 반석 위에서 있으라고 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영광이 지나갈 때 손으로 덮었다가 뒷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기 위해 손으

로 덮는 부분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룯기에 나오는 룯이라는 여인은 가난하고, 비참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룯기 3장 9절을 보면 룯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여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고 덮어주시고 같이 가련하고 고통에 놓여있는 룯에게도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 때 우리를 지켜주시길 것입니다. 가정, 자녀, 민족,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할 때 주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 새 힘과 새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 12월 26일 목요일

하나님과 나

출애굽기 3:6~12

이기원 목사

하나님은 모세의 힘을 빼기 위해 광야에 두셨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전능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하신 적이 없었는데 ‘내 백성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어디 계십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너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습니다. 떨기나무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실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녀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물질이 말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습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유대인이었지만 이집트 왕자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살

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계속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의 문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고, 과거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속되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수 있는 바로보다 더 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호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가나안 땅에서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처녀가 낳은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늘 아래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저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하며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니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표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니 장자의 죽음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의 장자는 모두 죽지만 문설주에 어린양의 피를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놀라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12월 27일 금요일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 40:34~35

이상준 목사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그늘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안식처를 떠나 다시 도전하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지치고 실패할 때 그분의 그늘 아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출 40:34).

하나님이 지시하신대로 성막을 완성했는데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와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구름은 성경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구름은 홍수심판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구름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하나님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띄우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또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구름을 등장

시키시는 것입니다. 만날 수 없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출 40:35).

회막이라는 단어의 ‘회(모에드)’는 약속된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약속된 만남의 장소인 회막에 갔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장소에 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러 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만남의 장소를 자주 폐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에 대한 우리의 헌신 없이는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고, 이 만남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로망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펼치시고 오래도록 함께 머물기를 바라시는 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아래,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기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세속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소망과는 전혀 다르게 그분의 그늘 아래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토미 테니는 그의 책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문이 아니라 거주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늘 머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임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핵심은 헌신입니다. 헌신의 핵심은 선택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을 택하면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삶은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험통한 삶이 여러분 인생의 로망이 되고 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희생,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의 임재 아래 살고 싶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일상 속 아주 작은 선택의 순간에서...

크리스천은 누구이며,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예수님이 그 모델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자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훈련이 있다. 삶의 아주 작은 선택의 순간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삶을 뒤바꾸는 커다란 행동이 아니어도 된다.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아주 작은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고 생각과 행동을 바꿔나가면 된다. 일상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하고 행동을 바꾼 이들의 사연을 소개한다.

“쇼핑몰에서 가방이 하나 더 왔어요!”

H자매는 얼마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과 신발, 가방 등을 주문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가 드디어 도착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주문하지 않았던 가방이 하나 더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주문내역을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었다. 쇼핑몰에서 실수로 가방을 하나 더 보낸 것이다. H자매가 쇼핑몰에 연락해서 주문하지 않은 가방이 하나 더 배달되었다고 알리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 가방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H자매는 얼마 전 온누리신문에서 읽었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그 선택의 순간 “예수

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했더니 예수님이라면 당장 쇼핑몰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 돌려줬을 것이 분명했다. H자매는 망설임 없이 쇼핑몰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한 다음 가방을 되돌려 주었다. 쇼핑몰에서는 H자매에게 거듭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H자매는 쇼핑몰의 감사인사도 기분 좋았지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사실이 더욱 기쁘고 행복했다. H자매는 이번 일을 계기로 매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하고, 행동하기로 또 한번 마음먹었다.

“택시에서 현금 10만 원을 주웠어요”

K형제는 며칠 전 택시에서 현금 10만 원을

주웠다. 얼마 전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큰돈이 나갔고, 연말이라 모임이 많았던 탓에 마칩 돈이 필요한 찰나였다. 택시 뒷자리에 탄 사람은 자신뿐이었고 택시기사도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K형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자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으면 그만이었다. K형제는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두근거렸다. 코트 자락에 깔린 돈에 온 신경이 집중되었다. 그 돈이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치고 지나갔다. 그와 동시에 양심이 K형제를 콧속 찔렀다.

그 순간 온누리신문이 추천해서 읽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생각났다. 그 책을 읽고 자신도 그 책에 나온 사람들처럼 모든 순간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

로 행동하기로 다짐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짧은 순간 흔들리는 자신의 의지를 반성했다.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하고 행동하는 삶이 되려면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K형제는 코트 자락 밑으로 만지작거리던 그 돈을 택시기사에게 건넸다. 목적지인 온누리교회에 도착하자 택시기사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역시 온누리교회 교인들은 다르네요.”

* 일상에서 아주 작은 선택이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고 행동한 사연들을 찾습니다.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온누리신문에 실어드립니다.

온누리신문 · CGNTV 공동기획

가정예배 도구 <신앙고백서>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자녀들의 질문세례는 부모들이 가정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다. 매번 교역자나 순모임에 문의해서 답을 구할 수도 없고, 어물쩍 넘어가자니 영 찻찻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신앙고백서>를 참고하면 좋다.

신앙고백서는 개신교 교리를 질문과 답으로 정리한 책이다. 흔히 <요리문답>, <교리문답>이라고 부른다. 한국 교회에서는 세례교육을 할 때 <신앙고백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굉장히 논리적이고, 간결하며, 신앙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데 이만한 도

구가 없다. 내용이 어렵고 딱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한 번쯤 완독해서 맥락을 파악한 다음 자녀들의 질문에 따라 그때그때 활용해도 좋고, 매주 가정예배에서 한두 교리씩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것도 좋다.

한국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요리문답)를 교리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요리문답)는 신앙고백서, 신앙고백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들은 세 가지 모두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가정예배 전문가들은 가정예배에 직접 활용하기 좋은 것은 소요리문답이라고 추천한다.

그 내용이 쉽고 간결하기 때문이다.

소요리문답은 총 107개의 문답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이다. 이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답이 짧고 명쾌하다. 열여섯 번 째 질문은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는가?’이다. 답은 “아담과 더불어 맺은 계약은 그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위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한 것”이다. 이처럼 소요리문답은 누

구나 한번쯤 고민해볼 교리에 대한 간결하고 정확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시중에 소요리문답을 공부할 수 있는 책이나 해설지가 많이 출판되어 있다. 참고하면 좋다. 아예 소요리문답으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온가족이 함께하는 3분 예배>라는 서적도 있다. 이를 활용해도 좋다.

소셜책 한 권 읽을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 신앙고백서라니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릴 수 있다. 하지만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으로 전수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신앙을 견고히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가이드

제목 :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본문 : 이사야 43장 16-19절

찬양 : 오직 예수뿐이네

메시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가운데 통로를 내셨다.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모두 이끌어 내어 그곳에서 쓰러뜨리셨다”(사 43:16-17).

첫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며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가운데 통로를 내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모두 이끌어 내어 그곳에서 쓰러뜨리시며 불이 꺼진 심지처럼 사그라지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이길 힘이 무엇일까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어

떤 존재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피붙이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지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가정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19절). 해마다 12월이 되면 후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돌이키고 싶은 순간이 생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꿈꾸며 현재의 상황을 통하여 자라는 믿음을 기대하며 살게 하십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새로운 꿈을 꾸며 나아가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십니다.

/ 문영재 목사

찬양 :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12월 29일) 저녁 8시 30분 CGNTV에서 방송되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시청하시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온누리의 “메리크리스마스”

대형 크리스마스 블레싱, 크리스마스 콘서트 ‘The Gift’

온누리교회 곳곳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축하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열렸다.

대학청년부는 ‘2019 크리스마스 블레싱’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2월 7일(토)부터 25일(수)까지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66개 팀이 지역교회 등지를 찾아가 성탄절 특송, 식사 나눔, 어린이사역 등을 했다. 요셉공동체 4개 팀 지역교회 및 쪽방촌 사역, W공동체 2개 팀 지역교회 섬김, 길공동체 1개 팀 대학로 전도, SNS공동체 3개 팀 지역교회 섬김, 외국인 블레싱, 장애인 섬김, 여호수아공동체 23개 팀 지역교회 섬김, 미혼모, 군부대, 다문화가정, J4U공동체 10개 팀 지역교회 섬김, 갈렙공동체 1개 팀 지역교회 섬김, CH PLUS공동체 1개 팀 요양센터 병실 심방, 허브공동체 13개 팀 지역교회 섬김, 하늘공동체 7개 팀 지역교회 섬김, Pole2공동체 지역교회 및 군부대



대학청년부 청년들이 쪽방촌 어르신 식사 섬김사역을 하고 있다.

섬김사역을 했다.

서빙고 열린새신자예배에서는 지난 22일(주일) ‘뜻밖의 선물’을 주제로 전도집회를 열었다. 가수 김신의(그룹 ‘몽니’), 노사연, 노사봉 자매, 그림자가 고경선 자매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성탄절(25일)에는 전도

사역본부가 주최한 온 가족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막 올랐다. ‘The Gift’를 주제로 가수 김영우, 첼로앙상블 배일환과 이화첼리, 소프라노 김영미, 가수 노사연과 이무송, 교역자좌이어, 가수 효린이 출연했다. / 정현주, 홍하영 기자

새사람사역팀 봉사자 모집

새사람사역팀에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예배, 일대일제자양육 및 큐티사역 등을 섬길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교정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10-4286-0078

간증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처음 교도소에 왔을 때 불교경전을 구해 읽고 필사까지 해가며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데 마음의 평화나 안정은커녕 허탈감이 갈수록 심해졌다. 소망교도소로 옮겨와 온누리교회 신 집사님으로부터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으면서 마음에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다. 여든이 훌쩍 넘으신 부모님께 매주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내용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생전 교회 문턱에도 간 적 없던 어머니가 아내에게 부탁해서 성경책을 구해오라고 하셨다. 당신의 아들을 변화시킨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고, 무슨 말씀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말이다. 부디 바라기는 출소할 때까지 부모님이 건강하게 살아가셔서 같이 교회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기쁨 형제

온누리요양센터 성탄예배 및 세례식

지난 24일(화)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온누리요양센터에서 아주 특별한 성탄예배와 세례식이 있었다. 성탄예배에서는 양지 온누리교회 온담중앙단이 칸타타를 선보였고, 김순례(72세), 이순자(79세), 지상옥(86세)어르신이 세례를 받았다.

농어촌교회 돕는 사랑의 떡국떡 판매

사회선교부가 오늘(29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서 ‘농어촌교회 돕는 사랑의 떡국떡’을 판매한다. 수익금은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 및 자녀지원, 농어촌 교회 보수공사, 차량구매 지원 등에 쓰인다.

CGNTV 연말특집 다큐멘터리 29일 방영

〈맨인블랙- 어느 날 찾아온 당신의 이웃〉

CGNTV가 연말특집 다큐멘터리 〈맨인블랙- 어느 날 찾아온 당신의 이웃〉을 방영한다. 12월 29일(주일) 오전 10시 30분에 방송된다.

다큐멘터리 〈맨인블랙- 어느 날 찾아온 당신의 이웃〉 주인공은 17년 동안 미국 빈민가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이태후 목사다. 이태후 목사는 2003년부터 필라델피아 노스센트럴에서 사역하고

있다. 그 지역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흑인 빈민가로 미국 최대 우범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이태후 목사는 여름이면 바비큐 파티를 열고, 겨울이면 코트를 기증받아 나눠주는 등 자칭 ‘동네 목사’로 불리고 있다. 이태후 목사의 섬김 덕분에 하고 싶은 것조차 없었던 그곳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다.

/ 김영선 기자

“삶과 신앙에 모범되는 장로 되기를...”

2019 사역장로회 신입 환영 및 송년모임

‘2019 사역장로회 신입 환영 및 송년모임’이 지난 12월 16일(월)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부부와 이기원 목사, 장로 51명, 권사 28명 등 84명이 참석했다. 백승웅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김성순 장로 대표기도, 장로중앙단 특송, 이재훈 담임목사 설교, 주수일 장로(사역장로회 회장) 인사, 신

입회원 인사, 임원 인사, 김선래 장로 오찬기도, 문창극 장로 특강 등이 이어졌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온누리 영성을 통해 삶과 신앙에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증인이 되는 장로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온누리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취임

송영범 장로 대표이사 취임, 정호욱 목사 퇴임

송영범 장로(양재공동체)가 온누리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그동안 온누리복지재단 상임이사로 섬겨온 정호욱 목사가 퇴임했다.

지난 27일(금)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온누리복지재단 대표이사 취임식 및 상임이사 퇴임식이 열렸다. 온누리복지재단 임직원, 온누리교회 리더십 등 80명이 참석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종의 마음으로 섬김으로써 예수님이 구세주 되

심을 세상에 전파하는 복지재단이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송영범 장로는 취임사에서 “내 생각,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호욱 목사는 퇴임사에서 “교회와 기관을 뛰어넘어 하나 됨으로써 천국을 만들어가는 복지재단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12월 세레자

■서빙고
김경태 700102
김수연 600929
박정환 850224
박주은 860222
심경아 820414
오미정 901016
유아
김다아 180418
김현규 한누리
김주호 180106
김정태 손은희
김하나 180914
김태원 박정은
북하민 190226
북인수 박윤영
성지아 180202
성안정 장현미
양성준 180508
양웅모 이윤정
임세혁 181223
임우빈 조경숙
정마리 181109
정진욱 민예령
홍서준 181231

홍원일 이지혜
■양재
고혜경 870721
박상현 900428
배석한 811228
손종우 810205
이동욱 850615
이영진 661227
임지혜 830116
최홍성 800804
홍승현 830209
입교
고근나 800111
유아
고 겸 190424
고상진 최중미
고 율 180103
고상진 최중미
김도이 171112
김정훈 박민정
김하겸 190326
김병관 오정화
박라운 180830
박정훈 이종은

박이현 190528
박두원 이민지
박채은 171227
박요셉 이보람
신예은 190117
신동욱 장정은
오슬라 190314
오성진 이정희
옥채린 181027
옥영훈 김성경
이유준 180428
이승용 김명미
조 윤 181031
조영훈 최유리
주은서 180119
주환진 박나연
최사훈 180806
최영택 김명은
최서우 180901
최현철 박명희

박은선 860930
전보미 870505
한성훈 840405
입교
이선경 891211
유아
김다니엘 190920
김충성 윤기정
■요셉
장해연 870524
■J4U
입교
이종하 921113
■W
신다슬 960806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8603	강해란	용산	1138634	윤수열	부천 믿음	1138666	김건희	SNS	1138693	최병규	여호수아
1138604	이지현	강남B	1138639	정애주	Bridge33+	1138667	김승리	SNS	1138694	이영광	부천 화평
1138605	최승호	대전	1138640	김명숙	강동 말씀	1138668	주지혜	부천 소망	1138695	전미경	남양주B
1138606	임형우	대전	1138641	안경숙	강동 믿음	1138669	홍다솔	대전 드리마스	1138696	천경태	남양주B
1138607	백수현	대전	1138642	하지행	부천 화락	1138670	유은혜	대전 드리마스	1138697	한지영	부천 소망
1138608	김예진	대전	1138643	이안나	Point5	1138671	이신애	대전 드리마스	1138699	조윤석	인천 동누리
1138609	박주원	대전	1138644	유연선	강동 믿음	1138672	강주연	대전 드리마스	1138700	최주영	수원 복누리
1138610	육효정	대전	1138646	이희정	특별한초대	1138673	조성준	대전 드리마스	1138701	김강은	허브
1138611	이윤석	요셉	1138647	김은아	양지 서누리	1138674	김수연	동작	1138702	김정민	허브
1138612	김이삭	요셉	1138648	송돈애	인천 서누리	1138675	정호진	강남E	1138703	고지훈	허브
1138613	김지영	요셉	1138649	이윤지	대전 드리마스	1138676	조영승	인천 서누리	1138704	최성은	허브
1138614	권영아	요셉	1138650	진현경	대전 드리마스	1138677	이상분	평택	1138705	송정화	부천 Dream
1138615	백록담	요셉	1138651	고은이	SNS	1138678	장윤신	인천 미추홀	1138706	윤여진	강남C
1138616	김경아	부천 화평	1138652	박소미	SNS	1138679	최수현	수원 복누리	1138707	박종아	인천 미추홀
1138617	김지원	부천 믿음	1138653	김한경	SNS	1138680	김순애	분당B	1138709	박태수	남양주A
1138618	오경숙	부천 믿음	1138654	안지혜	SNS	1138681	남기직	강남A	1138710	박해자	인천 서누리
1138619	김재울	관악금천	1138655	장석인	SNS	1138682	박지혜	수원 동누리	1138711	김 희	부천 화락
1138620	권수민	요셉	1138656	이영연	SNS	1138683	장영준	인천 미추홀	1138712	이경수	부천 화락
1138621	김상윤	요셉	1138657	구시은	SNS	1138684	유지형	강촌	1138713	이기옥	J4U
1138622	정성현	요셉	1138658	전하원	SNS	1138685	김다윗	여호수아	1138714	김채린	J4U
1138623	윤한숙	인천 서누리	1138659	박경환	SNS	1138686	김은경	여호수아	1138715	문형진	J4U
1138626	박나연	강남A	1138660	양진솔	SNS	1138687	송정윤	여호수아	1138716	송의현	J4U
1138627	유미선	도곡	1138661	이정엽	SNS	1138688	황주연	여호수아	1138717	이재창	J4U
1138630	신동혁	SNS	1138662	손채미	SNS	1138689	정주리	여호수아	1138718	정덕환	J4U
1138631	백승현	J4U	1138663	박일근	SNS	1138690	지현석	여호수아	1138719	조수연	성북
1138632	이승윤	요셉	1138664	홍미정	SNS	1138691	박재준	여호수아			
1138633	박 경	부천 화평	1138665	안기범	SNS	1138692	정진솔	여호수아			

장로칼럼

남은 생을 감사와 기쁨으로



정순풍 장로
(남양주 온누리교회)

나와 내 아내 팽정애 권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8년 동안 대수술을 5회에 걸쳐 받았다. 고난이 연속된 삶이었다. 시간이 흘러 안정되나 싶었는데 그 집고의 고난이 또 이어졌다. 간경화, 신우염, 당뇨, 고혈압으로 고통의 날들이 시작되었다. 1년의 절반 이상을 병원에서 살아야 했다. 한동안 피 덩어리를 토해 내는 일이 계속 이어져 죽음을 눈앞에 보게 되었다. ‘이제 나는 정말 죽게 되는구나’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도 해봤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장로님 부부의 심방을 통해 말씀을 받게 되었다.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빌 3:21).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빌 4:13).

그 말씀은 내 마음에 강력하게 다가왔다. 매일 그 말씀을 붙잡았다. 그리고 시편 27편 이하 말씀을 매일 통독하며 부르짖었다.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그 손으로 나를 덮어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리고 무슨 용기인지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며 복용하던 약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다. 모든 약 복용을 끊고 3년 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그사이 혈압과 당뇨, 신우염이 많이 호전 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됐다. 가장 어려운 간경화는 완전 치유됐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게 됐다. 기적이 었다. 우리 부부는 그 사람 많은 병원에서 울며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려드렸다. 지금도

아내와 나는 2~3개월마다 검사를 하고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꽤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가끔씩 성사를 쓰기 시작했다. 그때 적은 시가 바로 ‘능력의 손길’이다.

영혼 속에 깊이 숨겨진 욕심/ 어둠의 사각 안에 갇힌/

무심의 자아 속에/ 공허의 소리 듣는다

평안의 기다림 지나치고/ 능력의 손길 호소 하지만/ 진리의 길 멀어져 가네

통곡의 소리 내 안에 가득하지만/ 영혼 속에 숨겨진 십자가/ 그래서 하늘 보네

낮아짐에 겸손을 배우며/ 사랑의 신비를 보도록/ 주님의 손길 다가오네

이 작은 가슴 트이고/ 환희의 신비 보도록/ 주님의 손길 다가오네

2007년 남양주 캠퍼스 담임목사님으로 오셨던 안광국 목사님께서 시화전을 계획하시고 내게 시를 출품하라고 하셔서 교회에 소개했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되었는데 한동안 내 안에 어려운 고뇌가 있었다. 아직도 죄의 쓴 뿌리가 남아 공동체와 이웃을 온전함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지 못하는 갈등에 마음이 무거웠다. 내 안에 자리 잡은 욕심이 아직도 소멸되지 못한 이 상황의 고난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그래서 ‘주인 잃은 십자가’, ‘또 나는 울고 있습니다’라는 성사를 쓰게 되어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고백했다. 근심 걱정은 버리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면서 평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는 죄의 쓴 뿌리를 100% 내려놓는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부르실 그날이라 믿는다. 나의 남은 생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 것을 다짐한다.

권사칼럼

함께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한은경 권사
(일산공동체)

온누리교회 식구가 된 지 어느덧 30년이 되었다. 내년이면 어느새 70세가 되고 은퇴 권사가 된다. 세월이 화살같이 지나간다는 말이 이제야 실감이 난다.

처음 온누리교회에 왔을 때는 내면이 정리되지 않아서 늘 불만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미숙하고 부족한 나를 교회는 차근차근 양육해주시고 기다려 주셨다. 가정경영에 대한 원칙도, 성경적인 지식도 없어서 심한 갈등 속에 있는 우리 부부를 가정사역자로 불러 주셨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저 부부는 자격이 없는데 무슨 가정사역자냐”고 말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 부부를 기다려 주셨다.

가정사역을 하면서 비로소 나의 내면을 돌아보게 되었고, 남편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교회의 기다려주는 사랑으로 우리 가정은 질서가 잡히고,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실제적으로 알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가정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한다. 나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한다. “가정사역을 하며 가장 성장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가정사역을 하면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 그동안 잘못된 세속문화로 인하여 나를 비롯한 많은 여성들이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지독한 남성우월주의로 여성들은 늘 소외되고 능력이 무시되었다. 그 결과 지금에 이르러서는 여성들이

분노하고, 세상을 경쟁과 투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추세다.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되어 버렸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본래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성을 바라보며 말씀에 근거한 바른 이성관을 세워야 할 때인 것 같다.

나는 지금 여성을 건강하게 만드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여성이 건강해야 건강한 어머니가 되고, 건강한 어머니는 남편과 하나 되어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한 어머니가 허용과 통제의 균형 잡힌 양육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학교가 나의 주사역이 되었다. 요즘은 시어머니와 장모의 역할의 중요성도 느끼고 있다. 두 자녀를 출가시키고 시어머니의 입장이 되어보니 과거에 비해 고부갈등보다는 장서갈등이 더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시어머니, 장모학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실행했다. 그 결과 많은 가정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여성을 건강하게 만드는 사역에 집중하며 나머지 삶을 드리려 한다. 어머니학교는 현재 전 세계 46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 사회 곳곳에서 우리를 부리고 있다. 관공서, 교도소에 있는 여성들과 군부대에서도 인성교육 요청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다. 함께 동역할 분들이 필요하다. 온누리교회에 계신 많은 권사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동안 온누리교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누리고 있다. 우리가 배우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온누리교회의 숨은 일꾼 권사님들, 동역자가 되어 함께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문의: 02-2182-9114

신앙에세이



이지연 선교사
(오사카 온누리교회)

일본 아키타현은 혼슈 북부 동해 연안에 있는 곳이다. 아오모리현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다. 아키타현의 도시로 시에 있는 ‘아키타 매일그리스도교회’는 한 가족의 눈물의 기도과 헌신으로 세워졌다. 그러나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무목교회이다. 영상으로 오사카 온누리교회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계기가 되어 지난 9월 첫 번째 아웃리치가 있었고,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두 번째 아웃리치가 진행되었다.

이번 아웃리치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기획되었다. 토요일 어린이 크리스마스집회, 주일 크리스마스예배와 음악회, 한국요리를 대

접하는 사역으로 준비했다. 이번 아웃리치에는 한국 조이어스 교회 챔버팀도 협력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 받은 말씀이 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시편 126편 50절 말씀이다. 2017년 개척해 올해로 3년째 매일 예배드리며 눈물 흘렸을 아키타매일그리스도교회의 기도씨앗이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영혼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아키타공항에 내릴 때 우리 팀을 맞아 준 것은 겨울왕국처럼 눈 덮인 하얀 세상이었다. 현지 기상사정으로 출발이 한 시간 지연되어 도착하자마자 전단지 배부를 위해서 서둘러 교회로 이동했다. 교회로 이동하는 중간에도 눈이 왔는데 다행히 우리가 전도지를 배부할 때는 눈이 그쳤다. 매서운 겨울바람에 손도 발도 꽂꽂 얼었지만 도시로 아이들의 크고 맑은 눈망울을 보면서 추위를 이길 수 있었다. 아웃리

영혼의 열매, 구원의 열매

치팀 아이들의 오사카벤(오사카 사투리)을 들으면서 오사카 사람은 처음 만나다라는 말에 함께 깔깔거리며 웃었다. 너무 즐거웠다.

아키타매일그리스도교회는 ‘매일 예배의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로 ‘매일’이라는 단어를 교회이름에 넣었다고 한다. 3명의 성도가 있는데 9월 아웃리치에서 1명, 이번 12월 아웃리치에서 2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일본에서 세례식이 열릴 때는 그 어느 때보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크다. 그 영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느껴져서 세례식에 동참하는 이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다. 세례자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천국에서 열릴 잔치를 생각하며 모두에게 기쁨이 가득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고, 축하하는 공동체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토요일에는 어린이 크리스마스 전도집회에

올 아이들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두근거렸다. 11명의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찬양하고 게임도 했다. 그림자 인형극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 예배 후에는 남자아이들은 미니카 조립, 여자아이들은 에코백 만들기과 케이크 장식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주일에 배에도 오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드디어 주일. 어린이 예배에는 어린이 13명, 어른예배에는 부모님 11명이 참석했다. 아웃리치팀과 함께 45명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다. 대화할 때 기독교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계속 교회에 나오시면 좋겠다.

주께서 맺으신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한다. 개인적으로도 주께서 나의 일본사역 열매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기다려본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늘 양 떼들과 똥구는 자신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 자신들의 처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비참함, 소외감, 좌절감을 느꼈을 목자들이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보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누워계신 아기 예수님이 과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가? 그들은 놀라웠을 것입니다. 자신들보다 비참한 모습으로 누워계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의 경배를 받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있는 분, 어떤 모습일지라도 가까이 갈 수 있는 분,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낙인찍히고,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사람으로부터 정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갈 수 있는 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버림받아 마땅하다고 판단 받는 흉악한 범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구유에 누우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고후 8:9).

구유에 누우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는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서면 부유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다른 사람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도 다른 사람의 배를 빌려서 사역하셨습니다. 만찬을 하실 때도 다른 사람의 다락방을 빌려서 하셨습니다. 죽으신 후에 무덤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아무것도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이 예수

님을 우리가 성탄 주일에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모실 때 “제 마음은 너무 더럽습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구유보다 더 더러운가?”

“제 삶은 너무 비천합니다”라고 하면 “구유보다 더 비천할까”라고 하실 것입니다. 목자들의 경배를 구유에서 받으신 예수님은 누구의 경배도 환영하십니다. 누구의 삶에도 임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높고 높으신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인류가 준 최초의 선물은 구유였지만, 마지막 선물은 십자가였습니다. 구유가 예수님이 낮아진 마지막 자리가 아닙니다. 구유는 출발이었을 뿐이고, 마지막 낮은 자리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의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까닭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까지 낮아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이 그 누구를 품지 못하겠습니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으며, 그 누구를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삶 속에 모셔 들일 때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천사들이 노래했던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고의 감사, 기쁨, 영광을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14절).

이 영광과 평화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축복,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영광과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왜 평화가 없어졌습니까? 영광을 가로챈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돌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깨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올려드릴 때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왜 평화가 없습니까?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마땅히 찬양받으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구유에 누우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모셔 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성탄은 이 평화를 맛보는 복된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유에 누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기 위해서 구유보다 더럽고 추한 우리들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축복 속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 삶 속에 최고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안식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 탄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린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십자가까지 낮아지심으로 죽임 당하신 예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마음과 잃어버렸던 평화를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에 찾아오셔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모신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모세 목사의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세계 역사’



류모세 목사
(살롬이스라엘 담당,
〈열린다성경〉 시리즈
저자)

19세기 제정 러시아에서 유대인의 삶은 다섯 명의 황제의 정책노선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된다. 1801년 즉위한 알렉산더 1세는 니콜레옹의 침입을 격퇴하면서 생긴 자신감을 발판으로 프랑스혁명 사상을 능동적으로 수용했다. 자유, 평등, 박애정신이 동토의 땅 러시아를 녹이면서 데카브리스트(반독재)운동과 브나로드(농민계몽)운동이 퍼져나갔다. ‘게토’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상인, 제조업자, 전문가, 학자로 집중적으로 양육했다. 하지만 1825년 니콜라스 1세가 즉위하면서 세상이 달라졌다. 즉위 첫날 청년 장교 3,000명이 참여한 데카브리스트당 반란을 경험한 그는 러시아를 이전보다 가혹한 경찰국가로 만들었다. 유대인들은 하루 사이에 무일푼 신세로 전락해 계

토 속에 차곡차곡 구겨 넣어졌다. 1855년 알렉산더 2세가 즉위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다시금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그는 러시아의 근대화 박차를 가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러시아의 유대인들을 활용해서 유럽의 유대금융가로부터 저금리 차관을 끌어오기 위함이었다. 갑자기 귀한 몸이 된 유대인들은 은행업, 법률, 건축, 의학 등의 업종을 손쉽게 차지했다. 1881년 광신적인 슬라브 민족주의자인 알렉산더 3세가 즉위하면서 세상은 또 다시 변한다. 그는 위대한 슬라브 민족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모두 유대인 탓으로 돌리고 100만이 넘는 유대인을 학살했다. 당시 처참한 학살을 피해 200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향했다. 미국으로 이주한 러시아계 유대인들의 복복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나타났다. 뉴욕 투자은행가인 유대인 야콥 쉬프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전비조달 자금을 찾던 일본의 전쟁펀드 발행을 보증하고 나섰다. 일본은 그 자금으로 신형무기와 군수물자를 대량 구입했고, 거대한 러시아를 침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야콥은 승리를 도운

유대인, 트로츠키,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

대가로 일본 천황으로부터 작위를 받는다. 1894년 즉위한 마지막 황제 니콜라스 2세는 유대인 박해를 지속했다. 무능한 그의 통치기를 끝으로 파란만장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공산주의 소련이 탄생하게 된다.

19세기에서 20세기를 거치는 100년 동안 황제들의 톨로코스타시 정책을 견디면서 수동적으로 살려달라고 애원만 하던 유대인들이 태도를 바꾸었다. 인내 끝에 찾아온 것은 굶주림과 박해뿐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유대인들이 세상을 뒤집기 위해 공산주의 혁명전사로 전향했다. 그 가운데 ‘붉은 군대’를 창설해 전 세계를 붉게 물들이려고 했던 레옹 트로츠키가 우뚝 서 있다. 트로츠키 없이 레닌 혼자 힘으로 볼셰비키혁명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볼셰비키 정당의 20% 이상이 유대인이었고, 트로츠키의 상징성으로 인해 전 세계는 ‘유대인=공산주의자’라는 공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일생 유대인의 친구였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도 볼셰비키의 잔학상이 세계에 알려지자 유대인에 대한 상당한 혼란을 가졌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러시아의 유대인들이 볼

셰비키혁명의 성공으로 인한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 것은 또 하나의 모순이다.

1917년 케렌스키 수상이 이끄는 임시정부에서 많은 해방이 있었지만, 그 해 10월 볼셰비키혁명이 완성되자 이후로는 유대인들에게 거의 재앙이었고, 역사의 시계를 완전히 거꾸로 돌린 것이었다. 레닌의 공포정치 아래에서 30만 명의 유대인들이 러시아를 떠났고,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삼을 막 뜨려는 순간인 1924년, 레닌이 54살의 한창 나이에 뇌출혈로 죽으면서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었다. 치열한 권력투쟁을 통해 혁명에서는 그다지 공이 없는 철저한 반유대주의자 스탈린이 권좌를 차지했다. 트로츠키는 이에 분노했고 혁명의 일등공신인 그는 숙청되었다. 결국 1940년 망명지인 멕시코에서 스탈린이 보낸 자객에 의해 암살당하며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게 된다.

〈열린다성경 스테디투어〉
-이스라엘 2020년 7월 25일~7월 31일
-터키, 그리스, 산토리니 2020년 7월 31일~8월 8일
문의: 010-4902-1022

서빙고 O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영어예배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철희 목사(010-2937-8799)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पाल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분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루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11:00/봉사자예배 9:30/네팔어예배 10:30 제2센터/차세대 11: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펄렉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02호 문의: 이진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목역) 잔 여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치)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잔여수량 70기) 문의: 서충관 팀장(02-3215-3176) NGO 더멋진세상 해외봉사단 모집 과업국: 르완다, 우간다, 네팔 분야: 공공행정, 보건, 교육 기간: 2020년 3월~2021년 3월 문의: 이가일 PM(02-2271-2246), gail@abetterworld.or.kr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better- world.or.kr) 참고 두란노아버지학교 154기 지원자 모집 일시: 2020년 2월 1일~29일 매주 토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회비: 120,000원 접수: 02-2182-9100, www.father.or.kr, 아이스쿨 문의: 박만상(010-2657-1875) 일본선교비전 나눔과 사역소개 일시: 전화 상담 후 안내 문의: 김철희 목사(010-2937-8799) *게시판 광고마감목요일오후4시	양 재 O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쁨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교: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릴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어진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문의: 서보희 총부(010-7235-0354) *환우중보, 심방, 전도(사랑홀 환우 요청함) 양재 살롱기도회 대상: 나라와 하나 됨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송세호 팀장(010-8634-9030) *12월 9일까지 통일아카데미로 대체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인도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월 두 번째 월 오후 7시 30분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충성홀 문의: 010-2735-3807 브릿지33+ 밴드팀원 모집 모집: 건반, 드럼,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문의: 이수준(010-6398-6022) 브릿지33+ 성가대 성가사 모집 문의: 변성우(010-5055-4031) *게시판 광고마감목요일오후4시
부 천 O32.322.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청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 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14:0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오전 9:00, 11:30 / 고등부~오전 9:00,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기쁨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 원 O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주일) 대학부 오후 2시(경찬홀) / 청년부 오후 3시(민음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3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유치부 오전 9:00, 11:30 소망홀 유년부 오전 9:00(초1~3), 11:30(초1~2) 사랑홀 초등부 오전 9:00(초4~6), 11:30(초3~4) 경찬홀 소년부 오전 11:30(초5~6) 믿음홀 중등부 오전 9시 비전홀 / 고등부 오전 9시 믿음홀 차세대 영어예배 오전 11:30 비전홀	대 전 O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7:1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젊은이예배 오후 14:30 분당, 5부 대학부예배 오후 14:30 누리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교(36개월~7세) 오전 9:00 꿈땅(초1~초6) 오전 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O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 3부(청 년) 오후 2:00 분당 / 4부(저녁) 오후 7:00 분당 / 다문화 주일 11:00 4층 온유홀 외국어예배 한디어 토요일 19:00 5층 믿음홀 / 네팔어 토요일 19:00 5층 소망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부흥예배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 유치 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 택 O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수요일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여성예배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예꿈실 꿈이지라는땅 오전 9:00, 11:30 꿈땅실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실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헬터	인 천 O32.437.9686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12/1, 8, 15, 22, 25, 29: 칸벤시아(송도동 6-1) 파워웨이브(중고등부) 예배/국제예배/사랑부 예배 제 너섬 7층(송도동 179-1), 대학청년부 제너섬 7층(송도 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주일예배 성인예배 9시/11:25 오후 1:45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사랑부 11:20, 꿈땅1 부 9:00, 파워웨이브부 9:00, 파워웨이브2부 11:20, 해본 리키즈 오후 13: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2시, 몽골어 예 배 오후 2시	강 동 O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분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지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지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사랑홀 사랑부 오전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분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분당	양 지 O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2부 예배 / 11:3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3부 두드림예배 / 14:3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어) / 11:30 / 2층 드림씨드홀(분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3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3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지라는 땅(유년) / 11:30 / 2층 아벤티셀러홀 꿈이지라는 땅(초등) / 11:30 / 2층 스크랜턴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3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CGNTV

연말특집 다큐멘터리

맨인블랙

어느 날 찾아온 당신의 이웃



“주일에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동네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좋은 이웃이에요.”

총성이 울리던 거리에 희망을 심은
흑인 빈민들의 이웃, 이태후 목사 이야기

방송 12월 29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재방송 12월 30일 월요일 오후 9시

새해엔, ‘공동체 성경읽기’

공동체 성경읽기로 2020년 성경통독에 도전하세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

365일 하루 20분,
드라마 바이블로 도전하는 성경통독



*추후 방송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첫 방송
매일 오전 6시 40분(주일 6시 20분) 방송

공동체 성경읽기
with 이재훈 목사

성경읽기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리더들의 이야기



*1편 그레이스머시재단 설립자 빌황 대표

2020년 1월 3일 첫 방송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40분 방송

*위 프로그램은 G&M글로벌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0-1660 문의 02-796-2243